"나고 죽음이 없거늘 임종게 설해 무엇에 쓰겠는가?"

21 심원사, 생지장 도량의 발원

2009년 9월 6일 새벽 5시 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3km 하류 모래섬에서 야영을 하던 5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 됐습니다. 또 두 시간이 좀 지나서 임진교에서 15Km 하류에 위치한 백학면 노곡리 비룡대교 아래서 낚시를 하던 40대의 한 남자도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 됐습니다. 일요일 새벽, 아닌 밤중의 홍두깨로 생사의 종적을 잃어버린 6명의 가족들이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날 새벽 2시께부터 대량의 물을 방류해 강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거기다 강물이 불어나면 대피경보를 울리게끔 되어 있던 자동경보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물의 대량 방류, 고장 난 경보 시스템이 무고한 국민 6명의 목숨을 물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관련 뉴스를 들을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쩐지 연천 심원사 부도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월요일 점심을 먹고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감행하고 맙니다. 그곳에 가면 울화통이 더 끓어오를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달려갑니다.

천지는 가을로 접어드느라 분주한데 삼화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다릅니다. 차도는 한산하고 인도에는 군인과 경찰들이 죽 늘어서서 강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이 다리 아래서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난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서 있는 사진 기자들의 어깨에 따가운 햇살이 쏟아질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경찰버스와 군용 차량, 구급차들의 움직임 속을 헤치고 보개산으로 달려갑니다.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기우뚱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민간인출입이 통제됐던 심원사 부도밭. 지금은 철원의 심원사와 구별해 원심원사로 이름을 고치고 복원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사이의 길모퉁이에 위치한 부도밭은 그다지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풀이 무성합니다. 두어 달 전 우연히 들렀을 땐 두 명의 군인이 예취기를 메고 풀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후 손을 보지 않은 듯합니다.

심원사 부도밭(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8호)은 그리 넓지 않지만 정방형으로 돌담을 둘러치고 있습니다. 잔디와 풀이 뒤엉켜 자라고 있고 부도와 비가 3단으로 나눠져 도열해 있는데, 비는 3기가 있고 부도는 12기가 좌정하고 있습니다. 깨진 탑 조각을 엉성하게 쌓아 두기도 했고 '허백당(虛白堂)'이란 명문이 보이는 석종은 옥개석 부분이 없어져 사리공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박기우 자매 공덕비.


경헌 대사 탑비.


학린 대사탑비.

총탄자국 선명한 부도와 비에서 격전의 역사 감지

관리 소홀로 도괴 반출 많아 아쉬워, 경헌 학린 대사 덕망 생생히 전해

'화산경원' 시주 박기우 자매 공덕비 영험 뒷받침

부도밭에 모셔진 부도의 주인들은 대개 조선 중기 이후의 스님들입니다. 허백당도 그 시대의 스님일 텐데,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리가 모셔졌던 부도가 뚜껑을 잃어버리고 사리를 모셨던 구멍에 빗물이 고여 하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침 옆에 쭈뼛하게 자란 들풀 줄기 끝에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그 꽃을 따서 사리공에 띄웁니다. 꽃은 하얀 빛을 발하는 사리가 된 듯합니다.

그렇게 부도밭을 훑어보고 다시 중앙 통로에서 찬찬히 부도들을 매만지며 한 바퀴 더 돕니다. 가운데는 아미타불의 화신 석가여래상이 모셔져 있는데 16년 전 인근 오봉사에 주석하는 효란 스님이 주변의 군부대 법사들과 뜻을 모아 조성한 것입니다.



가운데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두 기의 비가 있고 왼쪽에 하나의 비가 서 있는데 모양이 각기 다릅니다. 오른쪽의 비 가운데 사각의 좌대위에서 화려한 용무늬 이수를 떠받치고 있는 비는 서산대사 청허휴정 스님의 제자인 제월당(霽月堂) 경헌대사(敬軒大師 1544~1633)의 탑비입니다. 선조의 사위인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찬하고 선조의 여덟 번째 서자인 의창군 이광(李珖 1589~1645)이 빗돌과 전액의 글씨를 썼습니다.

비문에 의하면 경헌 대사는 '계율에 정통하고 선해(禪解)도 뛰어나 산문에 이름을 떨쳤을 뿐 아니라 법랍 또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세수 91세 법랍 76세에 입적했으니 당시로는 장수였고 법랍 또한 돋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비 후 5색 영롱한 사리 3과를 수습했는데, 다시 지극하게 기도를 해 두 과의 분신사리(分身舍利)를 얻었다고 비문은 전합니다. 모두 5과의 사리를 보개산 심원사, 금강산 표훈사 등에 석종탑을 조성해 봉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원사 부도밭에 남아 있는 부도 가운데 어느 것이 경헌 대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판독 가능하고 탑비 옆에 제법 우람한 석종이 있기는 하지만 명문을 읽을 수 없어 경헌 대사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도밭의 부도들은 다수 도괴되거나 밀반출 흔적이 역력해 경헌 대사의 부도가 어디론가 반출됐을 가능성도 자못 큰 것입니다.

비문에서 독특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문을 찬한 신익성 대감은 조선 왕의 사위인데 조선이 숭유억불 정책을 펴는 바람에 경헌 대사 같은 훌륭한 인물이 더 큰 뜻을 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대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프다! 스님 같은 분이 신라나 고려시대에 탄생하였더라면 왕사나 국사의 칭호를 받아 한 시대를 영요(榮耀)롭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우문(右文, 유학을 숭상함) 하는 시대를 만나 몸이 황적(荒寂)한 경지로 도망가서도 능히 그 도를 성취하고…'

부도밭 중앙에서 왼쪽에 서 있는 탑비는 사각형의 기단위에 이수를 생략한 채 서 있는데 모양이 아래는 좁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져 호패처럼 생겼습니다. 비스듬히 서 있는 이 탑비는 취운당(翠雲堂) 학린(學璘)대사의 것으로 역시 부도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학린대사는 청허휴정의 제자인 청련(靑蓮)대사의 제자입니다.

비문은 당대에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던 정두경(1569~1668)이 지었는데 앞부분의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임종게도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비석은 무엇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가?"

"스님께서 임종게가 필요 없다고 해 설하시지 아니하신 뜻과, 제자들이 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서로 전혀 어긋남이 없사오니 원컨대 비문을 지어 주십시오."

학린 대사의 제자들과 비문을 지은 정두경의 대화입니다. 학린대사는 임종에 이르러 제자들이 게송을 청하자 "사와 생이 하나인 이치로써 항상 적(寂)하면서 조(照)함이어늘, 이러한 심체(心體)의 자리에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이미 나고 죽음이 없거늘 임종게를 설해서 무엇에 쓰겠는가?"라 했던 겁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를 매만져 봅니다. 사각의 좌대에 팔작지붕 형식의 갓을 얹은 근래에 제작된 비(1935년)입니다. 이 비는 스님의 탑비가 아니라 청신녀(여신도) 박기우(朴基佑)와 기석(基石) 자매의 공덕비입니다. 박기우는 구한말의 애국지사인 한규설의 부인인데 두 자매는 심원사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다가 석대암의 지장보살상이 방광하는 것에 가피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두 차례의 방광으로 커다란 감화를 입고 막대한 재산을 시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원사의 강원인 '화산경원'이 설립됐습니다. 고려 때의 문신 민지(閔漬 1248~1326)가 쓴 '보개산석대기'에 의하면 신라시대(720년 · 성덕왕 9)에 사냥꾼 이순석 형제가 사냥을 하다가 황금멧돼지를 쏘았는데 멧돼지는 어깨에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며 도망갔습니다. 환희봉 너머까지 따라가 보니 멧돼지는 보이지 않고 왼쪽어깨에 화살이 박힌 석상이 샘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놀란 형제는 석상을 꺼내려 했으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신기하게 생각한 형제는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대성(大聖)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도하고 해탈케 하고자 이런 신이한 변신을 보이셨나이다. 만일 내일 샘물가 바위 위에 나와 앉아 계시면 저희들은 마땅히 출가해 수도하겠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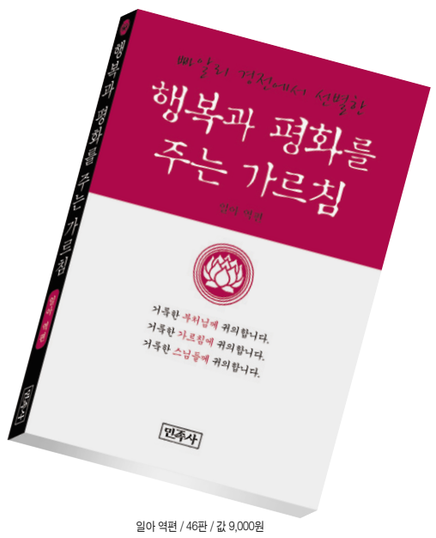
과연 다음날 아침 불상은 샘물가로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은 출가 했습니다. 이로부터 심원사에서는 여러 이적이 일어나면서 중생들이 환희심을 일으키고 수행자들이 정진에 매진했습니다.

심원사 부도밭의 부도들은 기울고 깨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탑비와 공덕비는 물론 비도들도 몸에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한 때는 부도밭을 사이에 두고 총격이 오고갔음을 감지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쏘았던 것일까요? 나고 죽는 것이 하나인 도리를 설하던 옛 스승들의 지혜는 이데올로기의 험난한 시대를 다스릴 수 없었으니 생사를 뛰어넘는 법 보다는 당장의 이념이 앞서는 것이 중생계인 탓일 겁니다.

13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옛 도량은 복원되는데, 60여 년 전에 쳐진 철조망은 언제 사라질까요? 아무런 통고 없이 물을 흘려보내 6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모함, 그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산 너머에서 노을빛으로 타고 있는데 심원사 부도밭 총알 자국 선명한 부도들은 깊은 침묵으로 앉아 있고 건너편 군부대에서는 창창한 장병들의 군가소리가 들려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듦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휜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